Entertainment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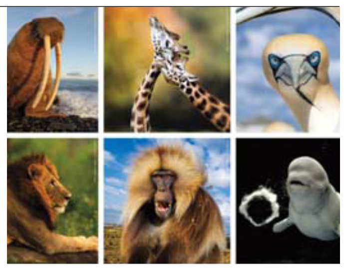


‘누나들의 남자’ 스타 보증수표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8일 금요일 제2959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9



희귀동물 희귀사진 한자리

“키스하면 편두통 사라져요”

GLOBAL p/04

정년 60세 임금피크제가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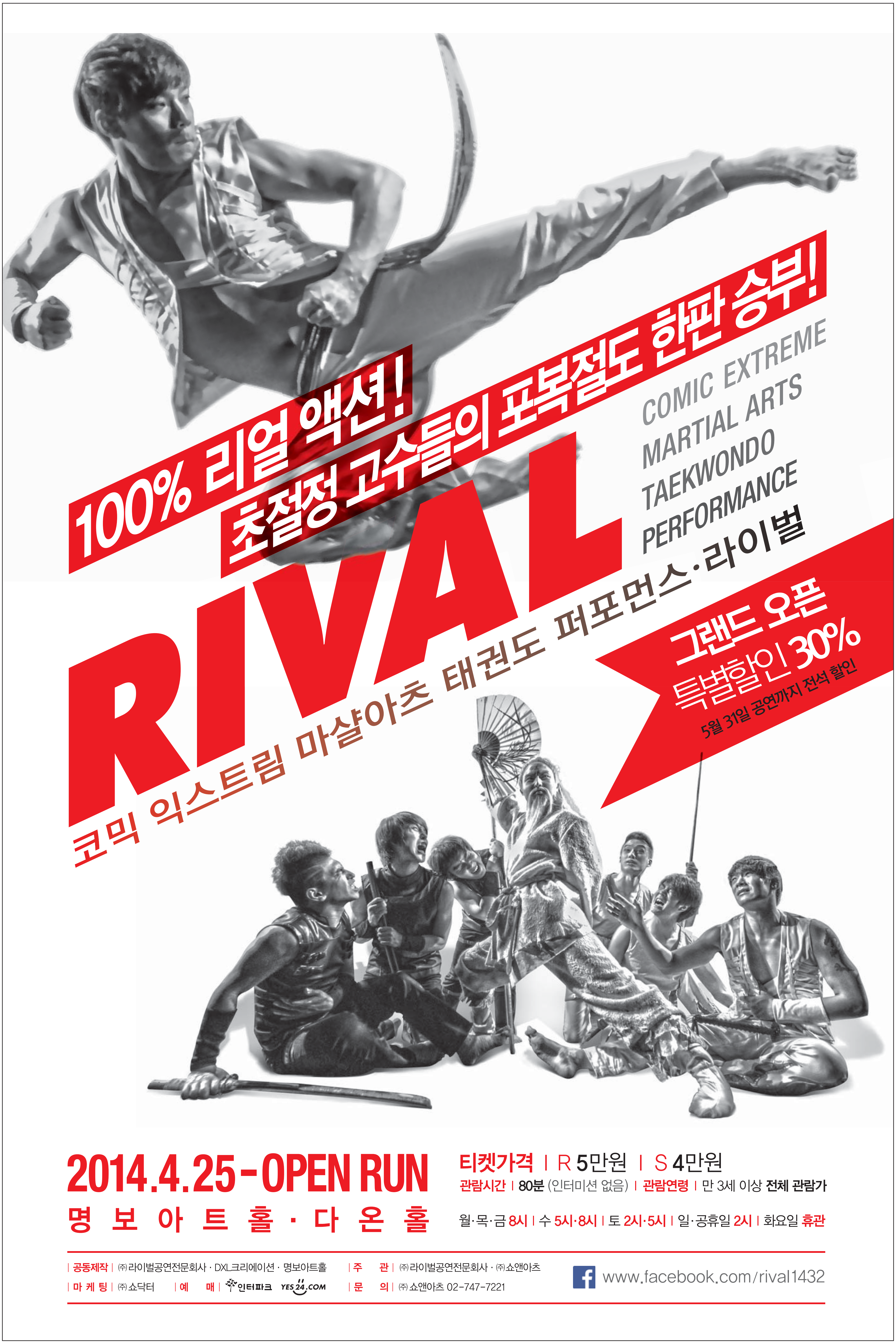
ECONOMY p/05

두 손을 자유롭게…바디백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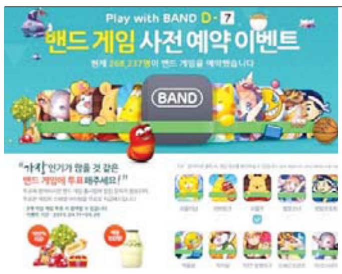




LIFE p/15



100% 리얼 액션!
초절정 고수들의 포복절도 한판 승부!
COMIC EXTREME
MARTIAL ARTS
TAEKWONDO
PERFORMANCE
RIVAL
코믹 익스트림 마샬아츠 태권도 퍼포먼스 · 라이벌
그랜드 오픈
특별할인 30%
5월 31일 공연까지 전석 할인
2014.4.25-OPEN RUN
명 보 아 트 홀 · 다 온 홀
티켓가격 | R 5만원 | S 4만원
관람시간 | 80분 (인터미션 없음) | 관람연령 | 만 3세 이상 전체 관람가
월·목·금 8시 | 수 5시·8시 | 토 2시·5시 | 일·공휴일 2시 | 화요일 휴관
| 공동제작 | ㈜라이벌공연전문회사 · DXL크리에이션 · 명보아트홀
| 마 케 팅 | ㈜쇼닥터 | 예 매 | 인터파크 YES24.COM
| 주 관 | ㈜라이벌공연전문회사 · ㈜쇼앤아츠
| 문 의 | ㈜쇼앤아츠 02-747-7221
www.facebook.com/rival1432



모바일 게임 플랫폼 삼국지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8일 금요일 제2959호 www.metroseoul.co.kr



홍명보 부상자 많아 비상



답답한 가족들 박 대통령에 항의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가족들은 박 대통령에게 "정말 시간이 급하다. 구조대책이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관련기사 2·3·17면> /연합뉴스

"어떻게 이런 일이…"

승객은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
우왕좌왕 대책반, 있으나 마나한 대응 매뉴얼

침몰 여객선 이틀째 수색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빠졌다. 침몰한 배에 뛰어들어 자녀를 구하고 싶지만 인근 뭍에서 하염없이 구조 소식을 기다려야만 하는 부모의 절규에 함께 울었다.

승객은 버려두고 먼저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 사고 초기 현장 수습의 기초가 되는 탑승자 인원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정부대책반, 있으나 마나한 위기 대응 매뉴얼에 온 국민이 답답해 했다.

무엇보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의 행동에 치를 떨었다.

끝까지 배를 지키며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선장은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치료 도중 신분을 묻자 "나는 승무원이라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탈출 후 젖은 지폐 여러 장을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해 눈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 먼저 탈출 선원법 위반

네티즌들은 이 선장이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사실은 명백한 선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원법 10조(재선의무)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박 위험시 조치를 다룬 11조에도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선장은 인명구조는커녕 가장 먼저 배를 탈출했다.

한 생존자는 "내가 가장 먼저 경비정으로 뛰어들어 구조됐다고 생각했는데, 경비정 구조원이 선장이 먼저 경비정에 타고 있었다고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생존자도 "구명정에 타 보니 선장과 기관사가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선장이 위험을 직감하고 탈출한 시각은 16일 오전 9시30분쯤이고 구조는 9시50분쯤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배 안에서는 오전 10시15분까지 "실내가 안전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2급 항해사 자격 논란

이 선장의 자격도 논란이다. 조사결과 그는 1급 항해사가 아닌 2급 항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t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 선장은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도록 돼 있다.

2급 항해사 면허를 가진 이씨가 세월호 선장을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자가 1급 항해사가 아닌 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경은 사고 원인을 항로를 변경하는 지점(변침점)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렸기 때문으로(급격한 변침)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17일 오전 2차 소환된 이 선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망 확인 14명으로 늘어

한편 17일 오후 10시 현재 세월호 침몰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유전자 검사까지 거쳐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선사 직원 박지영(22·여)씨,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권오천·임경빈군, 인솔교사 최혜정(24) 씨 등 5명이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는 단원고의 박성빈(18·여)·이다운(18·남)군, 교사 남윤철(35) 씨, 승무원 김기웅(28) 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파악한 세월호 탑승자는 475명이며 이 가운데 179명이 구조됐으나 282명은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탑승자로는 필리핀 국적 카브라스 알렉산드리아(40·여)와 마니오 에마누엘(45·남), 러시아인 학생 세르코프(18·남), 조선족 한금희·이도남 씨 등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3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피의자 조사받는 세월호 선장 17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목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 수색 총력

잠수팀 555명·헬기 29대·어선 수백척 투입…기상악화로 차질

세월호 침몰 사망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상악화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관·군·경 수색작업 등을 점검하고 구조활동을 독려했다.

해군과 해경 등은 경비정과 군함, 민간 어선 등 169척, 헬기 29대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장비를 총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해경(283명)·해군(229명)·소방(43명) 등 555명의 인력이 합동잠수팀을 구성해 수중 탐색에 나서는 등 입체수색을 하고 있다.

침몰한 선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수중에 펄이 많은데다가 강한 조류로 시야가 수십 ㎝에 불과하고 이날 오후 들어서는 기상악화로 작업이 한때 중단되는 등 수중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침몰 여객선을 인양할 크레인은 16일 오후 3척이 출발해 18일 오전에 1척, 오후에 2척이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정부도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 사고 수습과 사후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총리는 대책본부 현장에 상주한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심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한국선급(KR)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위원회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비통함과 절규 속에 자녀 등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과 차질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답답함을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와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국민 생명 지키는 정부 맞나?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5명의 탑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실종자들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정부의 느슨한 대처와 이에 따른 무능이었다. 사고 초기 현장 수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탑승자 인원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정정 발표하는 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알려져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김모 양은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가 "타이타닉호 침몰한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며 출발을 만류했던 사실을 언급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신모 군은 침몰 당시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 놓는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는 "왜? 나도 아들 사랑한다"고 답한 메시지가 공개돼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사고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전쟁 때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부디 아니길 바랄 뿐이다. 아직 희망은 있다.

승무원 지침 하나도 안 지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다시 한번 대형 재난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정부는 조난신고 접수 50분 뒤인 오전 9시40분에 승선인원이 많은 것을 감안해 해양선박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의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

해경과 군·관·민까지 가용인력과 장비가 총출동, 사고해역에서 구조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군과 해경의 구조작업을 독려했다.

그러나 475명이 타고 있던 대형 여객선이 조난신고를 보낸 뒤 보여준 구조작업은 이를 지켜본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신고 직후 해경이 출동해 헬기와 구명정 등으로 승객들을 구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승객을 탈출시키는 데 그쳤다. 사고 선박에 진입해 내부에 갇힌 승객들을 구출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고 선박인 세월호 일부 승무원들의 사고 대응도 비난을 사고 있다. 사고 선박이 기울기 전 구명정 하나 바다 밖으로 펼쳐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는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 대피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탈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승객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승무원 지침은 유명무실했고, 승객들을 선실에 머물러 있도록 한 조치도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현정기자 jhj@



"한 명이라도…"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해군과 해경이 빗속을 뚫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갇혀 있는 우리 애 살려달라"

진도 찾은 박 대통령에 실종자 가족들 '절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가 이틀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로는 드물게 일각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애가 타고 참담하겠지만 구조소식을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실종자 가족은 박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정부가 구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한 실종자 가족은 울면서 "우리 애가 차가운데 갇혀있는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이곳저곳에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대책이나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어떤 여건에서도 잠수부 500명을 투입해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자 고함과 함께 욕설이 터져나왔고, 박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 /윤다혜기자 ydh@

크레인 오늘에야 도착

침몰한 세월호 인양작업이 이르면 18일 오전 시작될 예정이지만 완전 인양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대우3600호(3600t급), 삼성중공업 삼성2호(3600t급), 해양환경관리공단 설악호(2000t급) 등 해상 크레인 3척은 지난 16일 오후 8시를 전후해 경남 거제와 진해에서 출항했다. 해상 크레인들은 18일 오전 8시께 사고 해역인 진도 해역에 차례로 도착,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6825t급 여객선이다. 2010년 침몰한 천안함이 1200t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규모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침몰 지점의 물살이 빠른 점도 인양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 때문에 세월호가 완전 인양되기까지는 1~2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민준기자

무리한 변침이 사고 불렀다

항로 변경 지점서 갑자기 뱃머리 돌려…수천톤 짐 '와르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는 항로를 변경하는 지점('변침점')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린 급격한 변침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0)씨 등 승무원 등을 조사한 해경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침(變針)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지점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이다.

제주로 항해할 경우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가는 지점이다. 사고 선박이 좌현으로 기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세월호가 이 변침점에서 완만하게 항로를 바꾸는 '소침'으로 해야했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해역은 조류가 거센 것으로 유명한 맹골수로다. 인천서 출발한 지 12시간 운항하는 동안 화물과 자동차 등이 결박력이 많이 느슨한 상태에서 무리한 변침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에는 당시 차량 180대와 컨테이너 화물 1157t이 실린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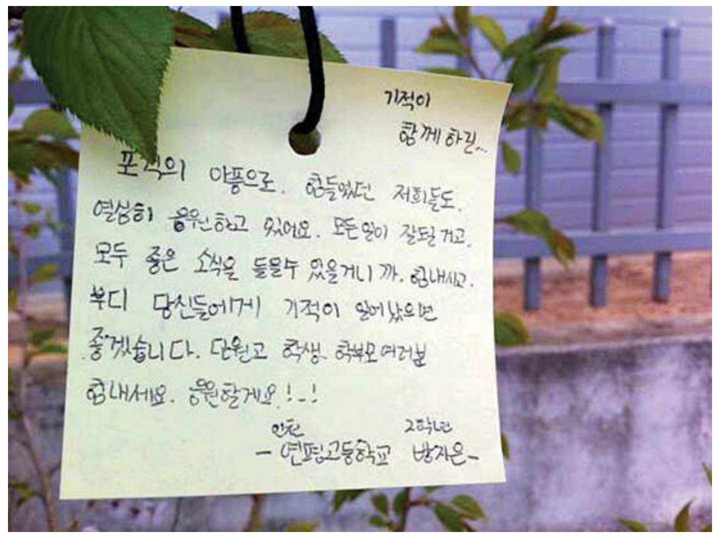
해경은 급격한 변침으로 결박 화물이 이탈하고 그 여파로 배가 서서히 기운 뒤 사고 신고 직후에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월호 승무원들이 수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에게 '제자리 대기'를 강조한 것은 자체 수습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배가 심하게 지그재그로 운항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급격한 변침 이후 배가 복원력을 잃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어 세월호의 무리한 구조변경이 그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박 운항장비 제조업체인 KCC 전자 박수한 대표이사는 17일 "건조된 지 20년이 된 세월호를 2012년 국내에 들여온 뒤 경영 효율성을 위해 무리한 구조변경을 한 것이 틀림없다"며 "승객과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최소 1개층의 수직 증축이 이뤄졌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배 균형을 잡아주는 흘수선이 높아지고 복원력이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꼭 무사해야 돼" 1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중·고등학교 교문 앞 나뭇가지에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안산 단원고 친구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쪽지가 달려 있다.

/연평중학교 제공

청해진해운 작년 8억 적자 경영난

대출해 준 은행들 분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2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던 청해진해운은 이후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0~2013년 4년간의 실적을 보면 영업적자와 흑자를 오가면서 연평균 약 1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은 7억8500만원에 달해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컸다.

매출액이 2012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59억원 늘어난 것에 그쳤는데 비해 선박비 등 매출원가는 70억원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해운업 업황이 좋지 않았던 가운데 청해진해운 역시 불황 속에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청해진해운에 수백억원을 대출해준 은행들도 상황 파악에 분주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사고로 청해진해운의 사정이 더 안좋아질 수 있다"며 "회사측은 세월호 등 배 5척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희생자 위한 기도 염수정 추기경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성유 축성 미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사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위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교구 사제·신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서울대교구 제공

실종자 위치추적…사고해역 인근 41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과 연락이 끊긴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남 진도 사고현장에 내려간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날 새벽 안산 단원고생 52명을 포함한 실종자 54명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였다.

위치추적 결과 41명이 사고현장 관할 기지국이 있는 진도군 조도면으로 나왔고 인근 진도군 지산면 2명, 신안군 도촌면 2명 등이었다.

나머지는 인천과 서산 등지였고 3명은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치추적 결과 지점은 휴대전화 전원이 마지막으로 끊긴 곳"이라며 "기계적인 문제 등으로 위치추적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너희들 구하고 따라가겠다"

고 박지영씨 구명조끼 양보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승무원 중 유일한 사망자인 박지영(22)씨가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탈출을 돕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선에서 구조돼 고대 안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안산 단원고 김수빈(17) 군은 17일 박씨가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김 군은 "배가 기울면서 3층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는데, 승무원 누나가 뛰어 내리라고 해 바다로 뛰어 내려 목숨을 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10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조끼가 모자라 승무원 누나가 학생들에게 양보했다"며 "승무원 덕분에 함께 있던 친구들은 모두 구조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박씨에게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묻자 박씨는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바다로 우선 뛰어 내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던 순간까지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힘쓴 박씨는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승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생활하며 생계를 도왔던 효녀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조현정기자 jhj@

오늘 진도 해역 날씨 맑아 생존자 구조 작업 '희망'

18일 남부 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아침까지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침몰 사고 해역이 포함된 서해 남부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 오후부터 점차 갤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바다의 물결은 0.5~1.5m로 일겠다.

전날 오후 진도 부근 해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날씨가 맑게 개고 바람도 전날보다 약해지면서 기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가 그침에 따라 생존자 구조와 수색작업에 진전이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현정기자

경찰 "생존자 메시지, 허위 가능성"

'세월호' 생존자가 보낸 것으로 기대된 SNS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신고가 접수된 구조요청 메시지의 진위를 수사한 결과 직전 게시자는 김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지금 배 안에서 살아 있으니 빨리 구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6일 오후 11시 10분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군이 초등학생임을 감안, 부모와 연락을 취해 이날 오후 동석한 자리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원고 2학년 여학생 이모양의 실명이 포함된 메시지에 대해서도 진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글쓴이의 아이디와 이양의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메시지 최초 게시자를 계속 추적 중이다.

/윤다혜기자 ydh@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Peru


8 beneficios de besar

La sangre fluye

El dolor de cabeza ya no será excusa

Dientes más sanos

Quemas calorías (pero solo un poco)

Es un barómetro para la compatibilidad sexual

Te vuelves más joven

Mejora tu autoestima

Eres más feliz

PUBLIMETRO

metro Brazil


Morumbi vão ...ntra o crime

...ão via rede social. Plano deve entrar em funcionamento até julho

범죄 소탕에 주민까지 나서

브라질 상파울루 경찰이 도시 내 부촌인 모룽비에서 범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들도 범죄 소탕 작전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범죄율로 고심하던 경찰은 각 주택마다 최소 한 명 씩 배치돼 있는 사설 경비원을 범죄 예방에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에는 110명 이상이 가르두아다 학교 강당에 모여 '주민 안전망 시스템'의 발대식을 가졌다.

metro France


Des visites trop rares chez le dentiste

Santé

Les Français ont-ils une dent contre leur praticien ? Oui à en croire une vaste étude (Arcane Research Affections buccales/Expanscience Laboratoires) menée en janvier 2014 auprès de plus de 6 000 personnes. Selon elle, 37 % de la population ne fréquentent pas assez régulièrement leur dentiste et se rendent moins d'une fois par an chez leur spécialiste. Si 18 % tâtent de la roulette très régulièrement, 82 % ne prennent rendez-vous qu'une fois ou moins par an.

Brossage de dents expéditif

Le coût et la peur de souffrir y sont sans doute pour beaucoup. Mais les Français sous-estiment aussi les petits bobos buccodentaires. Dans cette étude, où un peu plus de 7 000 dentistes et orthodontistes ont été interrogés, on peut découvrir les maux de bouche les plus fréquents. C'est la gingivite (inflammation de la gencive) qui arrive en tête. Dans ce cas, les femmes sont davantage concernées que les hommes (53 %, contre 47 %). En revanche, il n'y a pas d'âge préférentiel : 21 % des 18-29 ans et 23 % des 60-75 ans souffrent d'inflammation chronique. Parmi les autres pathologies fréquentes figurent les aphtes, la bouche sèche et la mauvaise haleine.

Pour rappel, selon des chiffres de 2010, un Français sur dix ne se brosse même pas les dents une fois par jour. En revanche, l'Union française de la santé buccodentaire ne préconise plus que deux nettoyages par jour, le matin et le soir. Selon elle, « il faut douze heures à la plaque dentaire pour se former ». Et le temps consacré au brossage doit être au moins de deux minutes, contre… quarante-trois secondes en moyenne chez les Français. C'est ce qu'on appelle une marge de progression.

● FLORENCE SANTROT

"치과 1년에 한 번 간다" 82%

프랑스인의 치과 방문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프랑스인 6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7%의 응답자가 치과를 1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가 18%, 1년에 1번 이하로 치과를 방문한다는 82%였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치료 과정이 너무 아프고 무섭기 때문에 치과 방문을 꺼린다고 말했다.

metro Mexico


...e los Poetas, ...ara peatones

멕시코 '시인의 다리' '죽음의 다리' 오명 왜?

멕시코시티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산타 페 지역. '신성한 믿음'이라는 뜻에 걸맞게 이곳에는 '시인의 다리'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다.

최근 이 시인의 다리가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다리에 보행자를 위한 어떠한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행통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은 고작 페인트로 칠한 선 하나 뿐이다. 원래 아무런 구분선도 없었는 데 미봉책으로 최근에 부랴부랴 그어진 것이다.

사실 이 다리 위에는 '보행자 통행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하지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목숨을 무릅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시인의 거리에는 사무실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직장인의 이동량이 많다. 하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만한 보행자 전용 도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이곳은 매일 아침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길목이 됐다.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베로니카 로페스는 출퇴근길이 불안한 목숨길과 같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 다리가 사무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사고가 나도 몸을 숨길만한 안전한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빗발치는 민원에 대응해 멕시코시티 당국이 3년 전 보행자 전용 통로를 만들었지만 관리 부족으로 오히려 보행자들이 꺼려하는 길이 돼버린지 오래다. 이곳은 현재 불법 진입한 자동차들이 순환도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

/카를라 모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키스하면 편두통 사라져요"

메트로 페루가 꼽은 '장점 8가지'…잇몸질환 예방, 다이어트에 동안 효과까지



연인 사이의 행동에서 키스만큼 황홀한 순간이 또 있을까. 최근 페루에서는 '국제 키스의 날'(4월 13일)을 기념해 '오랫동안 입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메트로 페루가 키스의 장점 8가지를 정리했다.

◆혈액순환에 도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할 때, 우리의 심장도 함께 흥분 상태에 빠진다. 박동수가 커지고 늘어난 혈액량에 맞춰 혈관도 넓어진다. 자연스럽게 혈압은 내려간다. 심장 전문의 안드레아 데미르히안은 "키스를 하면 혈압이 낮아진다"면서 "키스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연인에게 '키스 약' 요청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평소에 앓고 있던 편두통도 사그라든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머리가 아프면 '키스 약'을 요청하자.

◆박테리아 제거 효과

키스할때 분비되는 침은 대부분 연인의 체액과 입 속에서 섞인다. 이 때 연인의 침이 치아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해 잇몸 질환을 예방한다. 연인과 사랑을 나눈 흔적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연 치약'도 되는 셈이다.

◆달콤한 다이어트

연인과 하는 키스 한 번에 2~8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클럽에서 힘들여 운동하는 시간에 달콤한 키스를 하는게 더 낫다는 이야기다. 물론 단순히 입만 맞추고 있는 것으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랑 궁합' 확인

키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궁합'을 가늠할 수 있다. 첫 키스는 부끄럼때문에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편한 방식으로 키스를 즐길 때에는 '그 사람'과의 궁합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이 된다고 한다.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도 '이 사람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새로운 연인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

◆늘어진 피부 긴장

키스는 안면 근육을 긴장시키고 튼튼하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피부가 늘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세월에 약한 목과 턱 부분에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동안을 유지하고 싶다면 키스를 많이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자신감 '쑥'

애인과 입을 맞추면 사랑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고 자부심도 올라간다. 독일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부인의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업무 생산성이 높았다.

◆행복감 상승

연인과 살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많은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옥시토닌은 우리의 행복감을 배가시킨다.

/정리=조선미기자

이직 타이밍은 상반기… 기업 절반 경력 채용

올해 이직을 계획한 경력 구직자라면 상반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2.4%가 '있다'고 답했다. '미정'은 27.6%, '없다'는 19.9%였다. 채용 예정 시기는 '상반기'라는 응답이 무려 94.6%(복수응답)를 차지했다, '하반기'는 52.7%였다.

채용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수시 채용'(76.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취업포털 인재검색'(18.5%), '공채'(15.2%), '사내추천'(11.4%), '자사 인재풀 활용'(9.2%)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는 절반 이상인 52.7%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증가 예정'이 37.5%로 뒤를 이었다.

주로 채용하려는 연차는 '4~5년 차'(50.5%)가 가장 많았다. 채용 분야는 '영업·영업관리'(26.1%, 복수응답)와 '제조·생산'(23.4%), '연구개발'(19.6%)이 상위를 차지했다.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기준으로는 '직무 능력'이 61.4%로 단연 높았다. /이국명기자 kmlee@

market index <17일>

지표	수치	등락
코스피	1992.05	(−0.16)
코스닥	565.75	(−0.21)
금리(국고채 3년)	2.87	(−0.02)
환율(원·달러)	1039.00	(+0.20)

김종준 하나은행장 결국 사퇴하나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에따라 은행장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관련 임직원 5명은 3개월 감봉 조치키로 결정됐다.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로 조치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의 경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내년까지 연임이 확정돼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행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이 임기를 지킨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 받았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을 만한 법규 위반이 없어 문책 경고는 과하다"며 지난 10일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결국 판을 뒤집지는 못했다.

그의 중징계가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의중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은행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도 크게 휩쓸리지 않았고 외환은행의 카드 분할도 통합돼 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터졌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김 행장의 행보가 제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금융사고에 금감원장이 금융사 내부통제 소홀시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그 압박이 더욱 커진 것.

금감원 관계자는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근무 당시 직접 결정을 내린 당사자로서 제재를 피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은행, CEO,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

뉴스&뉴스



블랙야크, 안전산행 캠페인 블랙야크는 이달 18일부터 5월6일까지 '블랙야크 고어텍스 자켓' 구입고객에게 홍삼과 호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의 '레드에너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블랙야크 제공

무통장·무카드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통장·무카드거래 등 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매체 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데 사기범들은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환율 1000원선 위협 받나

●하이투자증권은 17일 "원화가 오는 3분기까지 강세를 이어가 환율 1000원선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2~3분기 중 환율의 저점은 1020원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4분기에는 미국의 출구전략 기대감에 기반을 둔 달러화 강세에 힘입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1년 이후 환율과 코스피는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지속했다"면서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자 환율은 1140~1050원 범위에서 박스권 매매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동의해야 소액결제 가능 휴대폰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내 일자리는 어디에'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장병 일자리 박람회에서 장병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가 정답

상의, 임금조정 없으면 신규 채용 감소

대부분의 기업이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임금체계개편이 쉽지않을 전망이어서, 신입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72.6%)고 답했다.

또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국내 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50대 이상이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돼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균기자 ksgit@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틀에 박힌 면접은 가라' 17일 인천 중구 운서동 하얏트 리젠시 인천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와우 데이 시즌 2'에서 지원자들이 호텔리어로서의 역량과 인성 파악을 위한 전인 그룹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증, 52년 만에 첫 구조조정

삼성·하나대투도 희망퇴직… 투자증권 폐업도 잇따라

성큼 다가온 봄이 무색하게 여의도는 또 다시 불어온 구조조정 한파에 휩싸였다. 삼성증권과 하나대투증권에 이어 대신증권까지 희망퇴직에 나선다는 소식에 여의도 금융가에 찬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퇴직 실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70%에 달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본사와 77개 영업점에서 동시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설문조사는 직원들의 의향을 묻는 단계로서 희망퇴직 대상이나 규모, 조건 등은 초기 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이 희망퇴직을 단행하면 창립 52년 만의 첫 인력 구조조정이 될 예정이다.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잇달아 인력 감축 계획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300~500명 규모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하면서 퇴직금 등 조건까지 자세하게 명시했다. 퇴직 대상은 근속 3년차 이상의 직원이며 임원은 6명 감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전날 6년 만의 희망퇴직 방침을 밝혔다.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이 직접 이메일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부장 이상 3년 이상 근속자와 차장 이하 7년 이상 근속자로서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로써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08년 하나증권과 대투증권의 합병 과정에서 인력 감축을 나선 뒤 또 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증권업계가 11년 만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자 증권업계의 구조조정 칼날을 대형사도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동양증권이나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도 인력감축 불안감이 상당하다.

동양증권은 대만 유안타증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600여명의 직원이 올 초 희망퇴직의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산업은행이 직접 매각 주관사로 나서 절차를 진행 중인 현대증권도 구조조정설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 확정된 우리투자증권도 최대 10%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투자증권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대형사의 상황이 이렇자 중소형사는 아예 문을 닫거나 존폐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다. 아이엠투자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역시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으나 마땅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애플투자증권은 최근 폐업했다.

일각에서는 대형사들마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망설이던 다른 증권사들도 인력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증권업계 종사자는 "여의도 인구가 줄어든 기분마저 든다"며 "줄을 잇는 구조조정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EM 발효액 활용법 아시나요?

찐순이 주부 경제학

요즘 살림 고수들 사이에서 'EM 발효액 활용법'이 화제다. EM이란 유용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등 사람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복합 배양한 것이다. 조금 생소하지만, EM 발효액만으로 청소는 물론 악취제거, 세탁, 다용도 세척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

EM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필요한 재료로는 빈 페트병(2L), 쌀뜨물(1.8L), EM원액(20ml), 설탕(20g), 천일염(1/2티스푼) 등이 있다. 쌀뜨물을 페트병에 넣고 5cm 공간을 남긴다. 미리 준비한 재료를 배합해 넣고 20~40도 되는 곳에서 일주일간 발효시키면 끝! 이렇게 완성된 EM 발효액으로 살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화장실 청소할 때 반짝반짝 빛을 낸다. 변기에 누런 때가 안 끼고, 물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일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정화 효과가 크고, 환경 보전에 효과적이다. 카페트 청소는 주부들에게 골칫거리 중 하나다. EM을 100배 희석해 카페트가 촉촉해질 때까지 뿌리고 마른 후에 만져보면 포슬포슬한 촉감이 좋다. 게다가 집먼지 진드기도 줄어든다는 사실. 행주도 마찬가지다. 100배 희석해 뿌려 말리면 식중독균이 줄어든다.

EM으로 도배 풀과 치약도 만들 수 있다. 보통 집에서 도배할 때 풀을 만드는데, 물을 섞지 말고 EM을 함께 넣으면 도배지 냄새가 싹 없어진다. 집수리를 할 때도 시멘트에 EM 발효액 넣고 개면 환경호르몬이 크게 줄어든다. EM과 치약을 섞어서 만든 '천연 치약'은 텁텁함이 없고 좋은 미생물균을 남겨둔다. 양치 후 주스를 먹어도 제 맛이 난다. 그냥 EM만을 사용해 가글을 해도 되고, 기존 치약에 EM을 적셔 닦아도 좋다.

흔히 '살림의 고수'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고수들의 노하우를 참고서 삼아 응용하고 공부한다면 당신도 멋진 주부 9단이 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한화, 이라크 플랜트 준공식 한화건설이 지난 16일 세계 최대 규모의 PC(Precast Concrete) 플랜트 준공식을 갖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주택 10만호 건립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PC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한 (우측 다섯 번째부터 좌측으로) 사미 알 아라지 NIC 의장, 누리 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조정원 이라크 대사, 문석 한화건설 전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강남 경매 낙찰률 '고공행진'

강남3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등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쟁률도 200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가리켰다.

17일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 경매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86.61%로 집계됐다. 지난달(83.65%)에 비해 2.86%포인트, 작년 같은달(77.07%)와 비교해서는 9.54%포인트 오른 것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낙찰가율뿐 아니라 경쟁률도 높아졌다. 지난달 강남3구 입찰경쟁률은 8.36대 1로, 2009년 7월(8.98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역 경쟁률이 8대 1을 넘어선 것도 그해 8월(8.15대 1)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강남3구 아파트 경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중소형 저가 물건으로 집중됐던 입찰 열기가 중대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입지, 교통, 학군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16일까지 집계한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113.51%로 조사돼 4월에는 3월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옥기자

2기 신도기 '경부라인'만 웃어

판교·광교 매매가 상승

수도권 2기신도시의 첫 분양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경부라인을 따라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가까울수록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멀어질수록 하락폭이 컸다.

1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기신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판교신도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판교는 2006년 공급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22만원이었지만 2014년 4월 현재 2164만원으로 63.7%나 뛰었다.

이어 2004년 2기신도시 중 가장 먼저 분양한 화성 동탄1신도시가 753만원에서 1051만원으로 39.6% 올랐다. 입주한지 오래돼 주거인프라가 잘 형성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위는 2008년 첫 분양을 시작한 광교신도시에 돌아갔다. 3.3㎡당 분양가는 1250만원이었지만 현재 아파트 및 분양권 시세는 15.4% 오른 1443만원이다.

아직 입주 전인 동탄2신도시의 경우 2012년 선보인 단지들의 평균 분양가가 1047만원이었는데 반해, 현재 분양권 시세는 1115만원으로 6.5%의 웃돈이 붙었다. 위례신도시 역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많지 않지만 암암리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반면, 광교와 같은 2008년부터 공급에 들어간 김포한강신도시는 934만원에서 894만원으로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4.3% 낮게 형성됐다. /박선옥기자 pso9820@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안타깝다"

이건희 회장 96일만에 귀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0여일만에 귀국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이 회장은 17일 오후 3시30분께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1월 11일 출국한 지 96일 만이다.

공항 입국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등이 마중 나왔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삼성그룹 신년 하례식과 신년 사장단 만찬에 참석한 뒤 출국했다. 지난해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등 각종 일정과 사업 구상을 위해 4차례 출국, 7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렀다.

이 회장은 '건강이 어떠냐'는 질문에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보시는 대로 괜찮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최지성 실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 보고하자 '안타깝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사업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희기자

황창규 "'싱글 KT' 만들자"

회장 취임 후 첫 계열사 사장단 회의



황창규 KT 회장(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했다. 이 같은 황 회장의 행보는 KT ENS 직원의 사기대출 연루 사건,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잇따른 악재속에 전 계열사가 힘을 합쳐 혁신에 나서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17일 KT에 따르면 황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계열사 1등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싱글 KT,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전 계열사가 1등 KT를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계열사는 계열사 자체의 좁은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KT와 전 계열사가 한 몸처럼 '싱글 KT'가 돼 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글로벌 1등 KT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황 회장이 강조한 '싱글 KT'는 하나된 KT를 뜻하는 용어로, 그룹이 하나가 돼야만 글로벌 1등이 가능하다는 황 회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황 회장은 KT가 보유한 ICT 역량을 계열사의 비즈니스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창출은 물론,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융합의 리더로 각 계열사 CEO가 나서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그룹 시너지 창출과 원활한 소통 추진을 지원해 계열사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KT 그룹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열사 CEO들 역시 '계열사 CEO'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그룹 CEO'의 시각으로 계열사를 경영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KT가 최근 제정, 시행 중인 '신 윤리경영원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윤리경영원칙은 KT인이 공유하고 지켜야할 윤리경영 5대 행동원칙으로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 ▲스스로 회사와 내가 하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진다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황 회장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KT 계열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통신지원에 완벽을 기하고 국민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노동생산성 3년 만에 증가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가 99.5(2010=100)로, 전년보다 1.1% 증가해 2010년 이후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큰 폭의 건설투자 증가와 소비 및 수출의 완만한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 증가했다. 노동투입량은 0.4%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1.1% 상승했다.

전산업의 근로자수는 전년대비 1.0% 늘어난 반면, 근로시간은 0.6% 줄어 전체적인 노동투입량은 0.4% 증가했다. /세종=유주영기자



최신 카메라 '한자리에'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서 각 카메라 제조사의 모델들이 대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안사고 예방 사람 관리가 최선"

윤대진 SK인포섹 수석 컨설턴트 강조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컴퓨터가 아닌 인재(人災)란 지적이 나왔다.

윤대진 SK 인포섹 수석 컨설턴트는 17일 "보안 시스템은 외부 침입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이상 징후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컴퓨터가 할 수는 없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K C&C와 SK 인포섹의 최근 10년간 주요 기업 보안 사고에 따르면 해킹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고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대신 해킹 공격 기간은 길어졌다. 짧으면 하루 단위에서 길게는 3년부터 10년까지 잠재했다 공격하는 식이다.

이는 최근 공격 형태 대부분이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APT 공격으로 인해 감염된 좀비 PC가 증가하면서 서버가 파괴되고 해커는 내부 시스템에 잠복한 악성코드들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빼내게 된다.

이밖에 내부자 과실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윤 컨설턴트는 "꼼꼼한 보안 담당자와 전사 차원의 보안 경각심이 있다면 대규모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최근 터진 모 회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서 담당자가 홈페이지 해킹 침입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 사고를 막으려면 보안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말단 직원부터 회사 CEO까지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 자산 가운데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자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요 자산은 건물, 홈페이지, 종이 문서, 비밀번호 등 형태와 종류는 다양하다.

자산 우선순위를 설정했으면 문제 사항을 고치기 위한 수행 주기와 대안 방안, 직무 분장표 기록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컨설턴트는 "보안 부서와 담당자뿐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의 매뉴얼과 행동 요령도 꼼꼼히 인수인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컨설턴트는 "회사의 보안 정책을 CEO가 최종 의사결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10년 내 1만대 보급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에 연료전지시스템을 장착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투싼 수소차 공개

현대자동차가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1만대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차는 17일 경기도 용인의 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오는 6월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15대를 광주광역시에 공급하고 연내 40대를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배터리만 장착한 전기차에 비해 항속거리가 길어 '진정한 친환경차'로 불린다.

현대차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소차의 양산성과 정비성을 고려해 연료전지시스템을 내연기관 엔진크기 수준으로 소형화하고 모듈화했다.

투싼 수소연료전지차는 독자 개발한 100kW의 연료전지 스택과 100kW 구동 모터, 24kW의 고전압 배터리, 700기압(bar)의 수소저장 탱크를 탑재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시동이 가능하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견줄 수 있는 가속, 동력 성능도 갖췄다. 최고속도는 160km/h,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제로백)은 12.5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15km(자체 기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파열 시험, 극한 반복 가압 시험, 화염 시험, 총격 시험, 낙하 시험 등 총 14개 항목의 내압용기(수소저장탱크) 인증도 거쳤다. 정면, 후방, 측면 충돌 시험 및 고전압, 수소 누출 등 13개 항목의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

주요 부품은 국내 200여 곳의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국산화율은 95% 이상에 달한다.

◆가격은 1억 5000만원

현대차는 올해 국내에서 40대의 투싼 수소연료전지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모두 1만 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를 국내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의 가격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와 기술 개발로 가격이 낮아지면 2020년부터 일반 고객들도 구입할 수 있는 대중화 시대에 진입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친환경차 타입별 풀라인업 양산체계 구축 ▲진정한 친환경 차량인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선도 ▲수소 충전소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차 개발 방향과 장기계획을 공개했다. 충전소 보급사업에도 최대한 협력하고 정비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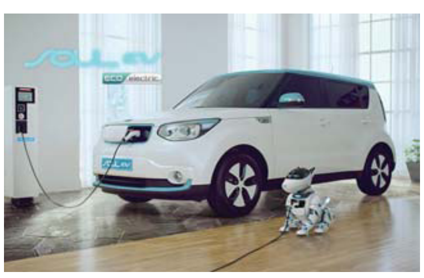
이달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에서 11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700기압(bar) 충전압력의 충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10기를 추가 건설하고 2025년까지 2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진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은 "글로벌 모터쇼에서 친환경이 핵심 단어가 되지 오래됐다"며 "생존을 위한 필수라 인식하고 친환경차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희기자 ssh814@metroseoul.co.kr

재치 넘치는 쏘울EV 광고 눈길

지난 11일 방영된 쏘울EV의 TV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호기심에 어린 동그란 눈으로 한 곳을 쳐다보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한다. 탁 트인 바닷가 앞에서 충전 중인 쏘울EV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지고, 로봇 강아지가 보인다. 이어서 전자음 섞인 소리로 '월월'하고 짖는 장면에서는 드디어 전기차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연이어 아담 램버트의 곡 'Shady'가 강하게 터지며 쏘울EV의 시원하고 파워풀한 주행이 펼쳐진다. 이 주행신은 특히 전기차 선도 도시 제주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 광고는 전기 자동차의 특성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탄생하게 된 로봇 강아지와 일반 강아지를 대조해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혁신성을 쉽고 위트 있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8 준우승자인 아담 램버트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서 Shady를 사용한 쏘울EV 광고를 언급했을 정도로 광고와 음악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LG유플러스, 단독 영업 가입자 '쑥쑥'

하루 평균 8338명 순증… SK텔레콤 대비 2000명 이상

LG유플러스가 단독 영업 기간 가입자 유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단독 영업을 시작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8만3880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일평균 8388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단독 영업에 나섰던 SK텔레콤의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가 6262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0건 이상 높다.

LG유플러스는 이처럼 예상보다 높은 가입자 순증 수치와 관련해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로부터 사전예약 등 불법 영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최근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불법 영업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 순증 수치만 보더라도 매일 꾸준히 8000~9000명의 가입자가 이동하고 있다"며 "만일 초반에 우리가 불법 영업 행위를 했다면 단독 영업 기간 초반에 비해 지금은 가입자 순증 수치가 줄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우리(LG유플러스)는 사전가입 예약을 받거나 불법 영업을 한 적 없다"며 "오해가 풀려야 한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측은 오히려 꾸준히 가입자 순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 출시 효과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에 따른 입소문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보다 우리의 잠재 고객이 많고, 갤럭시S5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며 "사용자의 삶과 밀착된 신규서비스 출시와 고객 편의성 증대로 서비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내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프로모션 또한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음성,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LTE8무한대 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새로운 요금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LTE8 혜택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LTE8 혜택북'에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영화 예매권, 음료 교환권, 주유 상품권, U+쇼핑 상품권 등 총 10만원 상당의 기본 혜택이 담겨있다. U+HDTV, U+프로야구, U+Box 등 5가지 서비스의 이벤트에 따라 큰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고객맞춤형 비서 애플리케이션인 'U스푼' 업그레이드 버전과 영화와 음악, 실시간TV 관련 서비스를 위젯화 한 'LTE All 서비스팩' 및 '갤럭시 기어 3종'을 출시하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6일을 기해 또다시 영업정지 일정에 들어간다. 과연 영업정지 재개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꾸준한 가입자 유치로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당신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통3사 장애인 맞춤 서비스 감동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동통신3사가 장애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3억1000만원 상당의 070플레이어 1000대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장애가정에 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 인터넷 전화기 070플레이어는 음악 채널 엠넷을 통한 음악듣기, U+HDTV의 TV 다시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앱 사용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을 돕는다. 개통을 하지 않아도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일반 스마트 기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070플레이어에 내장된 20여 권의 시집·소설·검정고시 준비용 논술도서 등도 이용 가능하다.

고연순 CSR팀 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고가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부담되는 시각 장애 가정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장애인 편의를 돕는 고객 상담 센터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연합회 이룸센터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 봉사자가 시각장애인에게 070플레이어로 오디오북 청취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장애인과 고령층을 배려한 '모바일T월드 4.0'을 서비스하고 있다. 앱 접근성 기준에 맞춰 설계된 모바일T월드 4.0은 모든 기능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음성 안내, 글씨 크기 조정, 애니메이션 최소화 등 시각·지체 장애인 및 고령층을 위한 15개 항목을 개선했다.

KT의 '올레 문자 고객센터'는 최근 이용 건수 100만건을 넘어섰다.

올레 문자 고객센터는 KT 휴대폰에서 문자의 수신처를 114로 입력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문자로 적어 보내면 사용이 가능하다. 올레 문자 고객센터는 음성 고객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에게 호평받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세월호 악성 괴담 확산 경악

스미싱 문자 주의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악성 괴담이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SNS 괴담성 정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정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부가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 "국정원 사태를 덮으려는 정부 음모" "북한 어뢰가 원인" "실제 탑승객은 더 많다" 등의 추측성 이야기가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존자를 사칭한 메시지가 떠돌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초 루머 유포자를 찾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세월호 정보들이 SNS에서 생성·확대됨에 따라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의 상호 적극적인 비판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SNS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괴담성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정보 발견 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주의보를 내렸다. 구조 현장 동영상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장윤희기자

화물에 전자인수증 도입

KT는 '올레비즈(olleh biz) 전자인수증' 서비스를 한진그룹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레비즈 전자 인수증은 기존의 종이 기반으로 하던 화물 운송장과 화물 인수증을 전자화한 서비스로 한진이 물류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한진은 전자 인수증 서비스가 운송 단계별 정보 확인, 법적 증빙 전자화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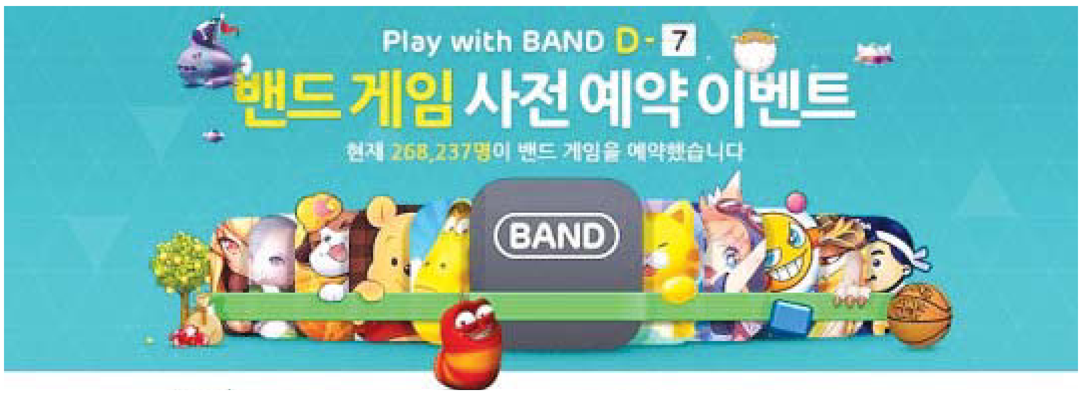
유양환 KT 기업사업컨설팅 본부장은 "올레비즈 전자 인수증은 물류운송 이해 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운송장 관리비용 감소, 화물 보안, 거래 투명성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드라마!
살 아 있 었 네…
★★★★★
갑동이 진짜 안 보면 후회한다. area****
채널 돌리다가 소름돋아서 끝까지 봤다! spla****
몰입 100%! 진짜진짜 대박 드라마! omy4****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와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충격! wnrm****
tvN 금토드라마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갑동이
오늘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한·중·미 모바일게임 플랫폼 삼국지

중국 위챗 등 카톡 라인 밴드게임과 대결
구글·페이스북의 글로벌 풀도 무시못해



한국, 중국, 미국이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놓고 각축을 벌인다.

모바일게임을 팔 수 있게 진열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는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게임하기' 비즈니스 모델 도입 후 급성장했고 지난해 매출 2108억원, 순이익 615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자유롭게 오가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 가운데 모바일게임을 자체 제작해 유통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미국 정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카오톡 게임하기, 라인 게임, 밴드 게임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

카톡 게임과 밴드 게임은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수준이고 라인 게임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맹활약 중이다. 텐센트의 위챗, QQ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은 14억 내수 시장을 토대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몇몇 게임은 혼자서 월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텐센트가 지난달 국내 1위 모바일게임사 CJ넷마블에 5300억원을 투자한 것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라이벌 텐센트가 돈을 긁어모이는 것을 본 알리바바 역시 모바일게임 플랫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아이러브 커피'로 유명한 한국의 파티게임즈 등 유력 업체와 연대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미국 국가대표는 페이스북과 구글이다. 지난해 장안의 화제가 됐던 '캔디크러시사가'는 페이스북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앱스토어로 확산됐다.

페북은 하루 7억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앱인 만큼 '페북 게임'은 잠재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게임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아 사실상 독주하고 있지만 방대한 양에 비해 퀄리티를 갖춘 게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구글은 최근 한국 게임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0개국 10억명에게 게임을 팔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번역과 같은 현지화 작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중·미 3국 플랫폼의 관건은 좋은 게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은 개발력, 중국은 자금동원, 미국은 유통에 강점이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모바일게임 삼국지가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텐센트 한류 파트너 이번엔 위메이드

'로스트사가' 5월 중국 공개서비스 확정



중국 게임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텐센트 게임즈와 원조 한류게임 '미르의 전설'시리즈로 중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위메이드가 손을 잡았다.

위메이드가 서비스하는 '로스트사가'가 텐센트와 함께 14억 중국 대륙을 공략한다.

위메이드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텐센트 게임즈 2014 신작 발표회'에서 5월 중 '로스트사가'의 현지 첫 공개서비스에 대해 예고하고 게임을 최초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트사가'의 중국 서비스 명은 대전 액션 게임의 특징을 잘 표현한 '왕패대결'로 최근 현지에서 'KGame'이라는 베일에 싸인 프로젝트 명으로 화두가 된 바 있다.

'로스트사가'는 인도네시아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현지 시장 2위에 빛나는 국민 게임으로 지난 11일 남미 정식 서비스에 이어 5월 중국 테스트로 전세계 16개국의 이용자들이 즐기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온라인 시장은 2016년까지 858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성훈기자

'롤' 아마 최고수 모여라

'클린 배틀' 30일 스타트

'리그오브 레전드(LoL·롤)'의 아마추어 최강을 가린다.

인기 온라인 게임 '롤'을 서비스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아마추어 플레이어가 참가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인 '클랜 배틀 2014'를 30일부터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플레이어는 27일까지 나이스게임TV 사이트(lolclan.nicegame.tv)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클랜들의 참가 목적과 수준을 기준으로 클랜배틀 '고수전'과 클랜배틀 '한판만'으로 구분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수전은 프로를 지향하는 상위팀들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최상위 대회다. 스프링·서머·윈터 리그 등 LoL 챔피언스와 동일한 호흡으로 연간 3번의 스플릿으로 나눠 진행된다.

스필릿 동안 누적 클랜포인트 기준 상위 16개 클랜이 오프라인 토너먼트를 치룬 후 최종 우승 클랜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토너먼트 상위 8개 클랜은 NLB 리그의 차기 시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시드권을 받을 수 있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게이머에게는 좋은 기회다. 스플릿 당 총 상금 규모도 1200만원에 달한다.

팀 랭크 '실버' 이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한판만'은 내년 2월까지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단판 매치로 치러진다. 매 스플릿마다 최다 승수를 기록한 상위 2개 클랜끼리 대전하는 오프라인 초청 매치도 마련된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새로워진 클랜배틀 대회를 통해 프로를 바라보는 많은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이 기량을 연마하고 프로 선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엔씨 유아 학습앱 '꼬물꼬물 도형놀이'

출시 기념 0.99달러로



엔씨소프트는 17일 '엔씨 아이액션북'의 새로운 아이패드 전용 유아 학습용 앱 '꼬물꼬물 도형놀이'를 출시했다.

'꼬물꼬물 도형놀이'는 '꼬물꼬물 수놀이'에 이은 유아 학습용 앱 두 번째 시리즈다. '꼬물꼬물 수놀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2013년을 빛낸 최고작' 중 '최고의 앱'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아 단계에 꼭 배워야 할 기본 도형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을 다양한 놀이로 익힐 수 있다.

앱은 ▲도형 알기 ▲닮은 도형 모으기 ▲짝 맞추기 ▲도형 기억하기 ▲다양한 모양 만들기 ▲도형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유아들이 놀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도형 감각을 기를 수 있고 영어로도 도형의 이름을 익힐 수 있다.

앱은 애플 앱스토어(https://itunes.apple.com/kr/app/id819125623?mt=8)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0.99달러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성훈기자

엠게임 1분기 흑자 전환

지난해 분기 적자 행진을 이어갔던 엠게임이 모처럼 흑자로 돌아섰다.

엠게임은 지난 1분기 매출 93억원, 영업이익 20억 9000만원, 당기순이익 1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1.8%,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모두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하며 매출액과 이익률 모두 대폭 상승한 수치다.

엠게임은 1분기 실적이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률이 낮은 온라인 게임들을 직접 서비스에서 수수료 취득 방식으로 변환시킨 사업의 구조적 개선, 개발비 일시 상각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목·어깨 통증, 두통, 만성 요통… 디스크 질환 적신호!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등 체형 불균형… 초기에 잡지 않으면 심각한 디스크로 진행

오랜 직장생활로 늘 목이 뻐근하고 양쪽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받아온 회사원 A양은 최근 두통 과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손 저림 증상이 생겨 한의원과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이에 A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받고 완치됐다는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도연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안면 비대칭과 거북목으로 변형됐다고 설명했으며 A양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디스크 중기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 A양은 약물 요법이나 시술적 치료가 아닌 골격 구조를 직접 손으로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뼈와 근육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운동요법을 통해 주 2회씩 치료받았다. 치료 3개월 후 A양의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통증에 따른 불편함은 질환이 발생하기 전과 같이 호전됐다.

또 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요통과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개운치 않는 느낌을 받아 회사 근처 병원에서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다리 땅김 증상이 시작되면서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A양과 같이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을 방문했다.

김 원장은 요추 MRI 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를 진단하고 간단하게 요추 신경 치료 주사로 치료했다. 이후 B씨는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일주일에 1~2회씩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3개월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김도연(오른쪽)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 원장과 개그맨 권재관.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정확한 진단 후 근본적인 치료 실시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요법, 침치료 등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인 환자들은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받은 후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는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이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술은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통해 치료받는다.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시술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시켰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및 교대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이화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개설

김현주 과장 임명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직업환경의학과를 개설하며 김현주(사진)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을 과장으로 임명했다.



의료원은 직업 및 환경과 관련된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를 개설했다.

의료원은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해 직업·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계획이며 ▲특수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 관리 ▲질환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 ▲직업·환경성 질환에 대한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직업적인 건강관리 대상이 제조업, 남성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여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이번 직업환경의학과 개설을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건강진단을 활성화해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질병의 예방과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후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전공)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단국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2013년에 개소해 의료원이 수탁 운영 중인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을 맡아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황재용기자

혈우병, 일상적인 치료로 정상 생활 가능

지난 17일은 '세계 혈우인의 날'이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혈우병 및 선천성 출혈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날을 기념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0명의 혈우병 환자가 있는데 혈우병 환우회인 한국코헴회는 지난 13일 충북 청원군 청남대 역사문화관에서 행사를 열고 혈우병 환우들의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걷기대회, 혈우병 강좌 등을 진행했다.



◆혈우병 치료 옵션 점차 진화하고 있어

혈우병은 혈액 응고인자가 선천적으로 결핍돼 피가 잘 멎지 않는 질환이다. 혈액 내 제8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A, 제9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B로 나뉘며 A형 혈우병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혈우병은 평생에 걸쳐 질환을 치료·관리해야 한다. 부족한 혈액 응고인자를 정맥에 주입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는 C형 간염 전염이 많았으며 이후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시도됐다.

그 결과 3세대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중에서 정제기술을 도입해 바이러스 감염 안전성을 높인 치료제가 등장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출시된 한국화이자의 '진타'이다. 더욱이 투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진타의 '올인원' 제형도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국내 시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혈우병은 정기적으로 부족한 혈액 응고인자를 투여해 출혈 빈도를 줄이는 유지요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혈우병성 관절병증의 발생 빈도가 낮아져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출혈이 있을 때마다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보충요법으로 치료하는 환자와 가족보다 높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지요법이 혈우병 치료의 표준이 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힘찬병원, 목 통증 건강강좌

힘찬병원이 오는 24일 7개의 분원에서 '헷갈리기 쉬운 목 통증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목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방법에 대한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따뜻한 봄날 시네마데이트 함께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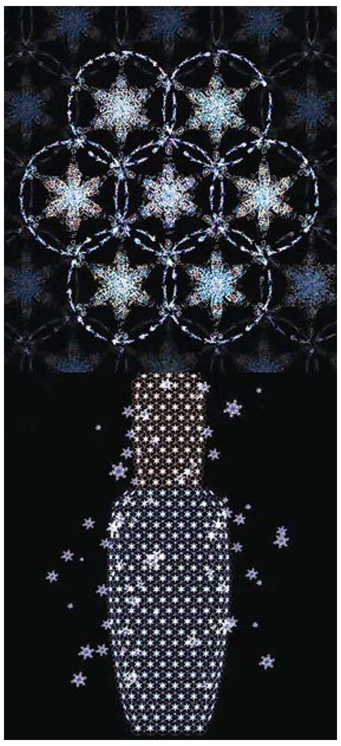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23일 저녁 왕십리 CGV에서 진행하는 'V라인 시네마데이트' 4월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네마데이트는 광동제약이 전개하는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18세기 천재 음악가 파가니니의 삶을 다룬 '파가니니'다.

시사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광동제약의 광동옥수수수염차 브랜드 페이지에 접속해 영화를 보고 싶은 이유나 사연을 등록하면 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작된 시네마데이트는 젊은이들의 문화 감성을 충전하는 행사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며 "옥수수수염차와 함께 따뜻한 봄날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패션·뷰티업계, 예술과 손잡는다



시각·청각 자극으로 소통과 브랜드 가치 높여

영상은 사진에 비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과 청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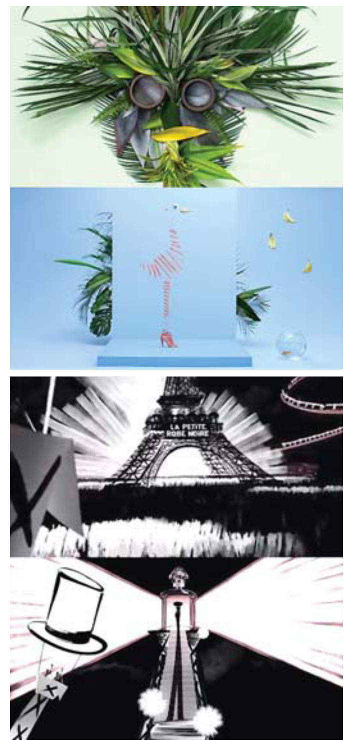
특히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아티스트와 협업해 감각적인 영상을 제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설화수는 대표 제품인 윤조에센스의 출시 17주년을 기념해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와 협업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진시영 작가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표현했으며 피부 속부터 우러나는 윤기를 구현하는 윤조에센스의 효능을 화려한 색감의 반짝이는 빛으로 나타냈다.

겔랑도 지난 3월 향수 신제품인 '라 쁘띠 로브 느와르 꾸뛰르'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듀오 일러스트레이터 올리비에 쿤첼·플로렌스 데이가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쿤첼·데이가스 듀오는 향수 용기의 블랙 드레스 일러스트는 물론 영상 제작까지 참여했다. 흑백 톤의 에펠탑이 등장하며 시작되는 이 영상은 향수 용기 안에서 등장한 여성이 우아한 블랙 롱 드레스를 입고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황홀한 쇼를 선보인다. 에펠탑 꼭대기에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으로 관객들 사이에 착지하고 탭 댄스와 화려한 춤 동작들을 선보이는 등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르메스 역시 올해의 테마를 끊임 없는 변화와 변신을 뜻하는 '메타폴포시스(Metamorphosis)'로 정하고 이를 주제로 한 독특하고 다양한 스토리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겸 아티스틱 디렉터인 쥴리엔 벨리에가 참여했다. 에르메스는 단순히 제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를 품은 뱅글, 새가 되는 분홍 구두, 잎사귀로 물든 지갑, 아이스크림에서 등장하는 넥타이 등 에르메스 특유의 재치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영상 안에 담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외식업계, '봄맞이 이벤트' 유혹

4월 한달 '1+1' '할인 행사' 등 다양

최근 외식업계가 지속적인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숯불구이 브랜드 숭례문은 봄을 맞아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숭례문 모듬구이'를 출시했다.

이 메뉴는 한우 1++등급의 등심과 한우 차돌·진갈비살·특양구이를 한 번에 맛 볼 수 있다.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숭례문이 와장창 쏩니다~'를 주제로 4월 한달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도 연다.

세븐스프링스는 '꽃피다 봄' 콘셉트의 신메뉴 20종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한 신메뉴는 봄 식재료를 이용해 그릴에 굽거나 간단한 드레싱만으로 맛을 낸 건강 레시피가 주를 이룬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봄 쌈 섹션'에서는 채소를 주꾸미·망고크랩 등의 토핑과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돼 있으며 '티 섹션'에서는 다양한 허브티와 블랙티가 제공된다.

봄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할인 이벤트도 4월 말까지 진행한다.

빕스는 봄을 맞아 신선하고 건강한 스테이크와 샐러드 메뉴 총 19종을 출시했다.

/정영일기자 prms@



모바일앱, 300만 다운로드 달성 홈플러스는 모바일앱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 만에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매출도 20배 이상 신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5월 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홈플러스 제공

'생수병' 배송용 보냉제로 첫 사용

쓰레기 배출량도 5분의1

친환경식품 전문기업인 자연에찬(www.natural-chan.com)은 국내 최초로 신선식품 포장박스에 넣는 보냉제로 젤 타입의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병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생수병 보냉제는 배송받을 때마다 생기는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하게 됐다.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회수시스템 구축과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수병 보냉제는 고객이 생수를 마실 수도 있고 아이스팩보다 더 쉽게 재활용이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연에찬은 주문식단 안내서와 제품주문서가 보냉제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캡을 재활용 가능하면서도 쓰레기 배출량도 5분의1로 줄일 수 있는 OPP 투명 비닐봉투로 바꿨다. 또 생협 매장 납품에 사용하던 대형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쓰레기 종이 포장박스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고준희, 쟈뎅 '카페리얼' 모델로

청포도에이드 등 출시

커피전문기업 쟈뎅은 편의점 전용 테이크아웃 아이스커피 브랜드 '카페리얼'의 새 모델로 고준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준희의 발랄함과 고혹적인 이미지가 이 커피의 주 고객층인 20대에서 30대까지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이번 새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카페리얼은 휴대가 간편한 파우치 형태의 제품과 전용컵, 얼음이 들어있는 '워터큐브'가 함께 제공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고급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카페리얼은 커피추출액 함량을 높인 프리미엄 카페리얼 아메리카노 더블샷과 에스프레소 모카, 헤니밀크티를 비롯해 청포도에이드와 자몽에이드 등의 음료류를 이번에 새롭게 출시했다.

쟈뎅 관계자는 "고품질의 원두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서 프리미엄 커피와 함께 청포도, 자몽 등 에이드 류를 새로 출시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의점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맛의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뷰티브랜드 '고객 맞춤 타깃형' 인기

제품 '세분화+전문성' 강조

최근 화장품 업계에 특정 시기나 성별·연령 등을 집중 공략하는 맞춤형 뷰티 브랜드의 성장이 눈에 띈다. 각기 다른 취향과 까다로운 제품 선택 기준을 가진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의 소비 패턴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브랜드들은 특정 타깃을 공략 하기 때문에 제품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시도한다.

쏭레브는 2007년 국내 최초 임산부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로 론칭됐다.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거쳐 얼굴과 바디 피부 전용 제품은 물론 두피 전용 제품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모든 제품은 천연 성분을 주원료로 한다. 따라서 임산부의 피부에 자극이 적고 태아에 전달돼도 안심할 수 있어 매년 20%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 임산부들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기도 했다.

남성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들도 눈에 띈다.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년 남성을 위한 피부 노화 방지·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LG생활건강 한방화장품 '후 군자양'은 '꽃중년'을 추구하는 남성을 타깃으로 해 거칠어진 중년 남성 피부를 윤기 있게 관리한다는 콘셉트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우르·오스는 피부 관리를 귀찮아하는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스킨·로션 겸용 제품이나 세안과 샤워가 모두 가능한 스킨워시 등을 내세워 쉽고 간편한 남성 뷰티 케어를 추구한다.

애경의 에이솔루션은 1998년부터 여드름 전용 화장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온 브랜드다. 최근 20대 성인 여드름 피부를 겨냥한 '트러블 포커스 라인'을 출시했다. 론칭 초기에는 13세에서 18세까지 성장기 청소년의 피부고민을 해결하는 제품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여드름은 물론 트러블 등 문제성 피부까지 관리하는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시켜 10대 청소년부터 민감한 피부를 가진 20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타깃 연령층을 넓혔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쏭레브 제공



'똑똑한 매트리스' 현대리바트는 17일 리바트하우징 도곡전시장에서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엔슬립'을 최초로 선보였다. 이 매트리스는 국내 최초로 스프링 단차를 이용해 몸의 곡선을 따라 압력을 분산하는 '멀티레벨 슬립센스 스프링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매트리스 제품보다 체압 분산 효과가 16% 높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리바트 제공

봄철 피부 '상큼하게' 지키기

비타민C 함유 케어 뷰티 제품 인기

봄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각질과 피지 분비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여름보다 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화장이 들뜨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시기다.

봄철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는 시트러스 계열 과일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레몬과 오렌지 등 감귤류 등의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리모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유해한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등 피부 톤을 맑게 하고 윤기와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

매끈한 피부결과 맑은 피부톤의 가장 큰 적인 피부 각질은 필링제나 스크럽 제품을 활용해 관리한다. 귀찮을 때는 각질 케어 기능을 포함한 간편한 마스크 팩을 사용해도 좋다.

봄에 활발해지는 피지 분비는 번들거림과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이 된다.

칙칙한 피부톤과 모공 모두가 고민이라면 감귤과 민트의 더블 화이트닝 효과를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피부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는 외출 후 세안이 중요한데 이때 세안제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퀴드나 젤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혜인기자

두 손을 자유롭게 '바디백' 인기

토트백·숄더백·백팩 등 상황따라 다양하게 활용성

여성들에게 백(Bag)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다. 트렌드 세터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백은 패션 아이템이다. 특히 원래 입던 스타일에 포인트로 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백 하나로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두 손이 자유롭다는 백팩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되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한 일명 '바디백'이 패션피플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바디백은 토트백·숄더백·백팩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가죽 소재의 발랄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가죽 특유의 멋이 풍겨 포멀한 룩은 물론 캐주얼한 룩에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 가죽소재의 바디백이 시즌 잇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톱스타들의 잇백으로 유명한 최고급 악어백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페이 리(Faye Lee), 이혜경 대표가 매스티지 브랜드 드페이 블랙(Defaye Black)을 지난 11일 론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브랜드 21드페이(21Defaye)를 론칭했고 이 브랜드는 톱스타 전지현, 이서진, 김희애 등이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가장 먼저 선보인 '카라멜 바디백'은 어깨에 크로스로 착용이 가능한 백팩 스타일의 제품이다. 여행과 레저는 물론 일상 생활과 데일리룩에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론칭 전부터 방송 '꽃보다 할배'에서 이서진이 메고 나온 가방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았다.

비비드한 컬러의 백은 요즘 같은 간절기 시즌에 기분전환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봄에 개나리를 닮은 컬러 옐로우는 상큼 발랄해 소녀의 감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기에 충분하고 스카이블루나 그린 컬러는 편안함을 주는 컬러로 청량한 느낌을 준다. 핑크나 오렌지 컬러는 팝하고 유니크한 컬러로 세련미를 뽐낼 수 있다.

비비드한 핑크 컬러의 토트백에 스트랩을 연결하면 숄더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좋다. 시스루 블라우스, 네이비나 블랙 컬러의 하의를 매치하면 시크한 도시 여성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멜리사, 롯데百 입점

젤리슈즈 브랜드 멜리사는 18일부터 24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 국내 최초로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 브랜드는 1979년 브라질에서 탄생한 오리지널 젤리슈즈로 플라스틱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유명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번 스토어에서는 칼 라거펠트, 제이슨 우, 캄파나 브라더스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과 신상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니멜리사 키즈라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갖춘 3인조 밴드 허니핑거식스 엉클샘, 황예린, 한경수(왼쪽부터).

"우리만의 색 유지할래요"

'픽스 유'로 데뷔한 3인조 밴드 허니핑거식스

음악성과 가창력을 두루 갖춘 미래가 기대되는 밴드가 등장했다. 바로 3인조 신인 밴드 허니핑거식스다. 이 밴드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은 황예린(21)과 한경수(28), 실력파 뮤지션 엉클샘(29)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말 싱글 앨범 '픽스 유'로 데뷔한 세 사람은 올해 초 발표한 신곡 '입장 차이'로 주목 받았다. 또 '피겨 여왕' 김연아의 응원가 '유 아 더 챔피언'을 불러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눈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밴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음악 프로그램서 가창력 검증 한경수·황예린
인디밴드 드러머 출신 실력파 뮤지션 엉클샘
올 하반기 단독 콘서트 통해 대중 만남 계획

◆ 실력과 개성 갖춘 밴드

수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가요계에 데뷔하는 신인 가수들과 달랐다. 지난해 12월 가요계에 데뷔해 불과 3개월만에 두 장의 싱글 앨범과 김연아 응원가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긴장감보다는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은 황예린, tvN '퍼펙트 싱어 VS' 왕중왕전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한경수, 인디밴드 드러머 출신으로서 드럼, 기타,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를 소화할 수 있는 엉클샘으로 구성됐다.

한경수는 "원래는 예린이와 함께 노래하는 보컬팀을 만드려고 했다. 그런데 단순해 보이고 심심해 보일 것 같았다. 음악성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수소문 끝에 악기 연주자인 엉클샘 형이 합류하게 됐다"고 허니핑거식스의 결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아이유가 소속된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데뷔를 준비했던 황예린은 "밴드 자체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라이브 세션으로 진행 하다보니 편안하고 감정 몰입도 잘되는 것 같다.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엉클샘은 "혼자서 연주하다 보니 기타나 드럼, 베이스 등 음악에 맞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어 즐겁다"고 설명했다.

◆ 진정성 담긴 음악 하고파

최근 가요계를 보면 매년 수십 개의 팀이 생겼다 사라진다.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인 아이돌 그룹의 경우 화려한 퍼포먼스와 자극적인 요소를 앞세워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급함보다 자신들의 음악적인 색을 유지하며 대중과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허니핑거식스는 데뷔 싱글에서 어반포크와 레게를 합친 장르의 노래 '다음 날'에서 독특한 색채의 음악을 보여줬다. 보컬을 맡고 있는 한경수와 황예린의 목소리에선 진한 감성이 묻어났다. 그런데 후속곡인 '입장차이'에선 180도 변신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가요계 트렌드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최소한의 악기로 최대한의 음악을 표현하려는게 저희 생각이죠. 시끄러운 느낌보다는 가사말에서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싶어요. 이 때문에 첫 번째 싱글은 드럼없이 단조로운 포커션으로 표현했죠."(엉클샘)

이어 한경수는 "앨범 녹음 작업을 할 때 최대한 비우려고 노력한다. 액세서리가 과하면 오히려 촌스럽다"며 "두 번째 싱글 '입장차이'에 삽입한 아이폰 벨소리 '마림바'는 뭔가 부족하지만 가사와 음악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이들의 이색적인 행보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예린은 "주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음악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래로 구성된 콘서트를 통해 대중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자인/박은지



여객선 사고에 한류도 '비상'

대형 공연 연기·취소… 스타 출연자제 분위기


2PM


이민호

진도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국내 연예계뿐 아니라 한류도 비상에 걸렸다.

롯데면세점이 18일부터 사흘간 잠실종합운동장 체조경기장에서 열 대형 한류 콘서트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패밀리 콘서트'의 일부 공연을 연기했다.

이 공연은 이민호·박신혜를 비롯해 엑소·2PM 등 K-팝 스타와 국내 보컬리스트, 인기 아이돌 스타가 총출동하는 콘서트다. 첫날인 18일에는 이민호·박신혜·2PM·B1A4·방탄소년단·씨스타가 출연한다. 이튿날은 백지영·김범수 등의 보컬리스트가, 마지막날에는 '대세돌' 엑소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18일은 1만2000명의 외국인 관객을 상대로, 나머지 이틀은 외국인 2000여 명과 국내 팬 대상으로 기획됐다.

롯데면세점은 "여객선 침몰 참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깊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이번 주말인 19·20일 예정돼 있던 패밀리 콘서트를 연기한다.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연 연기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수습에 힘쓸 예정이며, 하반기 공연에 다시 초청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외국인 전용 18일 공연은 이미 1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입국한 상태라 불가피하게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문화 공연 '와팝' 역시 19일 어린이대공원 와팝홀에서 열릴 정기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무대에는 방탄소년단·BTB·달샤벳·포맨·벤 등 다섯 팀이 오르기로 돼 있었다.

와팝 측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고 큰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 가수들이나 한류팬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도에 동참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판매된 티켓 환불 건에 대해서는 "한류 공연인 만큼 해외 관광객들이 여행상품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사·계열사를 연계해 판매된 티켓은 환불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한류스타도 잇따라 이번주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엑소는 16일 인터뷰 일정을 이미 연기했고, 이준기도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생일파티 팬미팅을 취소했다. 이준기 소속사는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걱정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팬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탁진현·김지민기자 tak0427@metroseoul.co.kr

'꽃할배' 여행 끝내면 수사

이순재 출연 형사 소재 드라마 후속 방송



tvN '꽃보다 할배'의 인기를 드라마로 이어간다.

'꽃보다 할배'의 후속으로 다음달 2일 첫 방송 예정인 드라마 '꽃할배 수사대'(사진)는 젊은 형사들이 수사 도중 알 수 없는 화학 약품에 노출돼 하루아침에 70대 노인으로 변하게 된 후 20대 엘리트 경찰과 함께 젊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꽃할배' 이순재, 코믹 연기의 대가 변희봉, 신 스틸러 장광,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이 주인공을 맡았다.

이순재는 경찰대를 수석으로 입학·졸업한 엘리트지만 독설을 서슴없이 날리는 차가운 인물 이준혁을 연기한다. 변희봉은 뛰어난 패션 센스를 자랑하며 여자들의 심리 파악에 탁월한 재주를 가진 바람둥이 한원빈 역을 맡았다. 장광은 걸그룹 에이핑크를 좋아하는 몸짱 형사 전강석 역을 연기한다. 할배가 된 세 형사를 돕는 경찰 박정우는 김희철이 맡았다.

할배들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배우들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응급남녀'의 최진혁은 이순재의 20대 모습으로 등장해 IQ 150의 천재 형사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변희봉의 20대는 드라마 '꽃미남 라면가게'의 박민우가 연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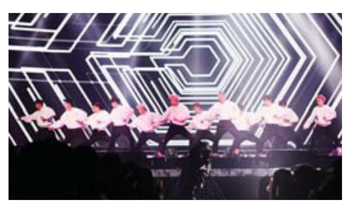
이준혁의 약혼녀 유라는 방송인 박은지, 수사대 리더 역에는 김응수, 경찰 차장 역에는 김병세 등이 캐스팅됐다.

한편 극본은 '테마게임' '남자셋 여자셋'의 예능 프로그램 출신 문선희 작가가 맡아 코믹 드라마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엑소 티켓 1.47초 만에 2만장 '싹'

첫 단독 공연 초고속 매진



그룹 엑소(사진)가 공연계 대세로 급부상했다.

엑소의 첫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예매 시작과 함께 단시간 완전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파워를 입증했다.

엑소의 콘서트 티켓 예매는 16일 오후 8시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됐다. 엑소 팬은 정확한 시간을 위해 '네이버시계'를 검색하며 티켓 구하기에 열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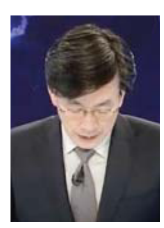
티켓은 판매가 시작된 지 불과 1.47초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됐다. 이에 많은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및 SNS 등을 통해 티켓 양도를 부탁하거나 취소표를 기다리는 등 티켓 구하기에 나선 상태다.

한편 엑소의 첫 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더 로스트 플래닛 인 서울'은 다음달 24일 오후 6시, 25일 오후 4시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들은 이틀간 2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을 예정이다. 엑소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일 앨범 수록곡을 포함,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ysw@

손석희 '10초 침묵' 시청자 '먹먹'

뉴스 중 목메어 진행 중단



손석희(사진) JTBC '뉴스9' 앵커의 진정성 있는 뉴스 보도에 시청자들도 함께 숙연해졌다.

손 앵커는 16일 방송에서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하던 중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돌발 상황을 빚었다. 손석희 앵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백 교수의 견해를 듣던 중 "가장 어려운 질문 일 수 있는데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가 "결론적으로 아주 희박하다"고 답하자 손석희 앵커는 수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전화 연결이 끊긴 듯한 상황이 발생했고, 오히려 통화를 하던 백 교수가 "여보세요?"라고 통화상태를 확인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앞서 특유의 감정을 자제한 침착한 태도로 뉴스를 진행하던 손석희 앵커는 30년 베테랑 방송인으로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이날 낮 뉴스특보 중 후배 앵커가 인터뷰 논란을 빚어 '뉴스9' 오프닝에서부터 직접 사과를 했던 터라 손석희 앵커의 모습은 더욱 화제가 됐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아무리 날카로운 손석희 앵커라도 똑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손석희 앵커라 더 진정성 있게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앵커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뭉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방송은 이튿날인 17일에도 내내 '손석희 10초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상에 큰 화제를 모았다.

/유순호기자 suno@

안방극장 엔돌핀, 파트너가 책임진다!

‘밀당’ 이문재·장효인… ‘귀여운 악당’ 쓰리쥐… ‘언발란스’ 김종국·이광수, 주말예능 드림팀



KBS2 ‘개그콘서트–두근두근’ 이문재·장효인 /KBS 제공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김준호(좌)·김주혁·김종민 /KBS 제공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이광수·김종국 /이광수 트위터

끼리끼리 뭉쳐 안방극장 엔돌핀 역할을 하는 연예계 최강 드림팀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김준호·김주혁·김종민은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이하 ‘1박2일’)에서 쓰리쥐로 단결했고 이문재·장효인은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에서 달콤한 커플을 연기 중이다.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의 김종국과 이광수는 티격태격 남남커플로 재미를 주고 있다.

‘1박2일’ 개그맨 김준호와 배우 김주혁·가수 김종민은 쓰리쥐로 매회 명장면을 만들어낸다. 세 사람은 게임 도중 다리에 쥐가 나 팀을 이루게 됐고 음모와 반칙을 일삼는 귀여운 악당역을 맡고 있다. 쓰리쥐의 힘은 베테랑 개그맨 김준호와 ‘1박2일’ 원년 멤버 김종민의 어리버리한 모습, 배우 김주혁의 반전 예능감이 어우러진 결과다. 지난달 ‘금연여행’ 특집에선 담배 청문회를 능청스럽게 주도했으며 니코틴패스라는 유행어도 만들어냈다. 쓰리쥐는 게임에선 허당 매력을 발산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개그맨 이문재와 개그우먼 장효인은 ‘개콘’ 코너 ‘두근두근’에서 사귈 듯 말 듯한 이성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두 사람은 실제 커플인 개그맨 양상국·배우 천이슬과 함께 광고를 찍을 정도로 완벽한 커플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인으로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문재는 메트로 신문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러나 장효인과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즐거운 선긋기를 했다. 누구나 겪을 법한 소재와 여심을 설레게 하는 대사가 이문재·장효인을 최강 콤비로 만든 원동력이다.

‘런닝맨’에서 가수 김종국과 배우 이광수는 각각 사자와 기린으로 예능 약육강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은 외모에서부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근육질 몸매와 타고난 운동실력으로 ‘런닝맨’에서 힘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국과 달리, 큰 키에 앙상한 몸을 지닌 이광수는 김종국이라는 힘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그러나 그는 배신의 아이콘답게 짝꿍 김종국의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 두 사람의 밀고 당기기가 시청자에게 즐거운 긴장감을 주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누나들의 남자’ 스타 보증수표

박해진·이종석 이어 서강준·박서준, 안방 대표 연하남 등극

최근 안방극장에 연상녀와 연하남의 로맨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하남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배우 서강준은 17일 종영을 한 MBC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에서 이혼녀 나애라(이민정)와 그의 전 남편 차정우(주상욱)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이룬 연하남 국승현을 연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 소속으로 지난해 MBC 드라마 페스티벌 ‘하늘재 살인사건’에서 윤하 역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6·25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 단막극 ‘하늘재 살인사건’은 40대 여자와 20대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서강준은 극중 사랑하는 정분(문소리)의 곁에 있기 위해 그의 딸 미수(이세영)와 결혼하는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다.

KBS2 ‘닥치고 패밀리’, MBC ‘금 나와라 뚝딱’, SBS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배우 박서준도 최근 연하남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4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마녀의 연애’에서 박서준은 윤동하 역으로 첫 주연을 맡아 본격적인 여성팬 공략에 나섰다.

박서준은 방송 첫 주부터 19살 연상 엄정화와 파격적인 애정신을 선보이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강준

연하남 캐릭터가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방영된 KBS2 ‘소문난 칠공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특한 캐릭터 작명 센스로 유명한 문영남 작가의 작품답게 박해진은 극중 연하남이란 이름의 캐릭터를 맡아 연상녀 나설칠(이태란)과 로맨스를 펼치며 인기 스타로 발돋움했다.

‘신 한류 4대 천왕’으로 김우빈·이민호·김수현과 함께 인기 고공행진 중인 이종석 역시 연하남 캐릭터로 사랑 받았다.

지난해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이종석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소년 박수하 역을 맡아 10살 연상 이보영과 호흡을 맞췄다.

이종석은 극중 초등학생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을 목격한 중학생 장혜성(이보영)을 지켜주기 위해 따라다니는 순정남을 연기하며 인기와 연기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



배우 박서준이 tvN 월화극 ‘마녀의 연애’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성훈(오른쪽)이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특별출연한 당시 모습

‘사랑이 아빠’ 파이터 본색

추성훈 MBC ‘트라이앵글’ 특별출연

‘사랑이 아빠’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드라마에서 악당으로 변신한다.

제작진은 17일 “추성훈이 ‘기황후’ 후속인 MBC 새 월화특별기획 ‘트라이앵글’에 특별출연한다”고 밝혔다.

추성훈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딸 사랑이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딸 바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허영달(김재중)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돈의 배후 세력으로 출연해 악당의 면모를 보인다.

극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 장동수(이범수)의 추격도 받아 이범수와 액션 대결도 펼친다.

추성훈은 앞서 ‘트라이앵글’의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드라마 ‘아테나:전쟁의 여신’에도 블랙 요원으로 출연해 차승원과 액션 대결을 펼친 바 있다.

태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추성훈이 ‘트라이앵글’의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제작사의 정태원 대표와의 각별한 인연이 한몫했다”면서 “오랜만에 보는 파이터 추성훈의 화려한 액션이 드라마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다음달 5일 첫 방송될 ‘트라이앵글’에는 이범수·김재중·임시완·오연수·백진희 등이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tak0427@

김영임 오케스트라 협연

내달 3일 국악인 최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

김영임(사진)이 국악인으로는 최초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다.



다음달 3일 열리는 효 콘서트 '엄마의 아리랑'은 지휘자 박상현이 참여하고 모스틀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어린이 합창단, 국악 코러스, 국악 연주자, 테너·뮤지컬 배우·배우로 구성된 4인조 K-팝페라 그룹 페도라도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다.

'효' 콘서트는 김영임의 대표 공연 브랜드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양의 오케스트라 선율에 우리의 음악을 녹여내고 김영임의 목소리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실험적인 무대다.

주최측은 "서양의 악기, 그것도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국악 보컬의 협연은 이전에 없었던 색다르고 흥미로운 시도"라며 "이번 공연은 김영임이 본격적으로 국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 전통의 노래에 담아 들려주며 눈물과 감동을 선사한 김영임이 오케스트라 선율에 우리가락과 노래를 담아 무대를 더욱 풍요롭게 꾸미고자 하는 도전이 아름답다"고 덧붙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전수조교인 경기명창 김영임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친근하고, 현실적으로 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효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추억이 담긴 이야기와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숨' 칸 학생경쟁부문 진출

100대 1 경쟁률 뚫고 시네파운데이션 선정

권현주 감독의 중편영화 '숨'(사진)이 제67회 칸영화제 학생 경쟁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에 진출했다.

칸영화제 사무국은 17일 홈페이지에 '숨'이 맥스 챈 감독의 '아워 블러드', 데이지 제이콥스 감독의 '더 비거 픽쳐' 등과 함께 시네파운데이션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앙대에 재학 중인 권 감독이 연출한 '숨'은 뇌사 상태에 빠진 엄마를 돌봐 온 딸의 복잡미묘한 심리를 따라가는 30여 분 분량의 영화다.

1998년에 만들어진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은 해마다 전 세계 학생영화 중 10여 편의 단·중편을 선보이는 칸영화제 공식초청 프로그램. 매년 초청작 중 우수 작품 세 편을 선정한다. 올해에는 1631편이 공모해 11개국에서 출품된 16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이란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다.

역대 수상 한국 영화는 2006년 홍성훈 감독의 '만남', 2008년 박재옥 감독의 '스톱', 2009년 조성희 감독의 '남매의 집', 2011년 손태겸 감독의 '야간비행'으로 각각 3등상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 '세이프'를 연출한 문병곤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단편 황금종려상을 받은 단편 부문에 올해엔 한국영화가 한 편도 들지 못했다. /탁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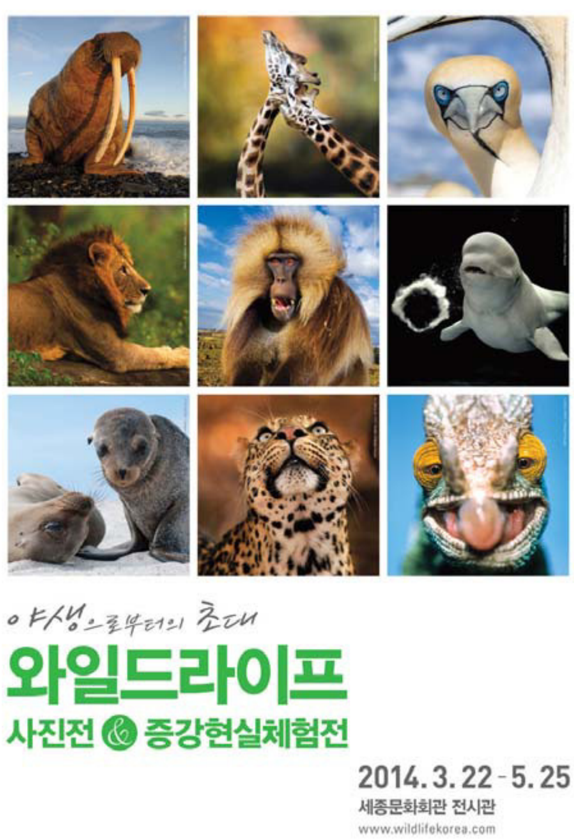
희귀동물 희귀사진 한자리에

와일드라이프전 개최

야생동물에 대한 사진을 전시하는 '와일드라이프, 사진전&증강현실체험전'이 다음달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북극곰, 태평양 바다코끼리, 호랑이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국내에는 생소한 베록스시파카, 사향소, 검은꼬리누와 같은 동물들의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된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과 'BBC 월드와이드'에서 매년 주최하는 '올해의 야생사진가 상'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과 실력을 갖춘 야생사진가들이 오지와 밀림을 누비며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야생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장 내부에 마련된 증강현실체험존에서는 국내 최초로 동작 인식 증강현실 시스템을 적용해 관람객들을 더욱 실감나는 야생의 세계로 안내한다.

22일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 등 순수 민간 운동에서 제정한 제44회 지구의 날이다. 따뜻한 봄날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야생동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탁진현기자 tak0427@

'방황하는…' 배리어 프리 상영

22일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

롯데시네마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22일 오후 7시 라페스타관에서 영화 '방황하는 칼날'(사진)을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상영한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삽입한 영화를 지칭한다.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자막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통해 영화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롯데시네마는 2006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이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상영이 돼야 한다"며 이번 상영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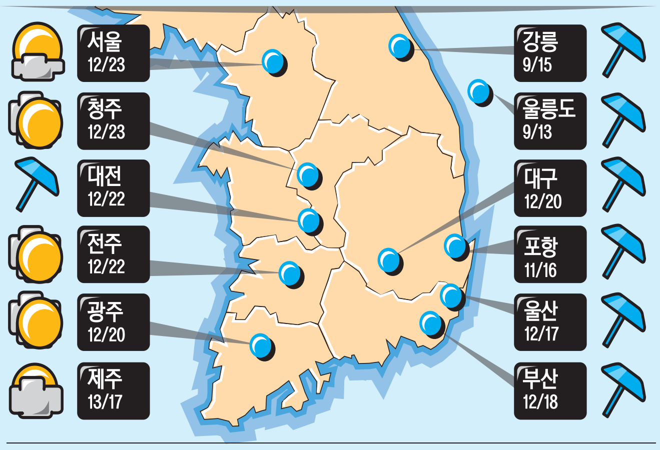
롯데시네마는 최근 홀트아동복지회와 협약식을 통해 반기별로 소외계층장애아동들에게 무료 영화 관람 기회와 다과를 제공해오고 있다. 평소 영화를 보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롯데시네마는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도 그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유순호기자



날씨

4/18 金 일출시각 05:54 일몰시각 19: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져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샤워 후에는 피부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6	4				
	1		9					
9	3	4		7				
		1			7	6	9	
			8	5	9			
	9	8	3			2		
				6		7	2	9
					3		6	
				8	4		5	3

		9	2				8	
8			3		4		7	6
	7		9				1	
	8	5		7				
			1		6			
				8		6	2	
	5				3		9	
2	4		7		1			8
	9				5	2		

스도쿠 정답

5	2	7	6	4	8	9	3	1
8	1	6	9	3	5	4	7	2
9	3	4	1	7	2	5	8	6
3	5	1	4	2	7	6	9	8
6	4	2	8	5	9	3	1	7
7	9	8	3	1	6	2	4	5
4	8	3	5	6	1	7	2	9
1	7	5	2	9	3	8	6	4
2	6	9	7	8	4	1	5	3

5	6	9	2	1	7	4	8	3
8	1	2	3	5	4	9	7	6
3	7	4	9	6	8	5	1	2
6	8	5	4	7	2	1	3	9
9	2	7	1	3	6	8	4	5
4	3	1	5	8	9	6	2	7
1	5	8	6	2	3	7	9	4
2	4	6	7	9	1	3	5	8
7	9	3	8	4	5	2	6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서촌'과 '이상의 집' 그 이면



권기봉의 **도시산책** <77>

최근 '서촌'이라 불리는 동네가 인기다. 이때 서촌은 서울 종로구 누상동과 누하동, 통인동 등 경복궁 서쪽지역을 가리키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나 아기자기한 식당들이 그 좁은 골목을 비집고 여럿 들어서 있다.

그런데 서촌은 그 동네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었다. '북촌'이나 '남촌'과 같은 지명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마찬가지로 서촌은 청계천의 서쪽 즉 서울시립미술관이 위치한 중구 정동 일대를 가리켜왔다. 요즈음 서촌이라 불리는 지역의 명칭은 사실 오랜 기간 '상촌(上村)'이나 '웃대' 혹은 '웃마을'이었다. 또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서촌이라 불리는 그 지역을 종로구청에선 '세종마을'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여하튼 그 지역에는 조선시대 때엔 서인 중에서도 소론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몰려 살았다.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 필운 이항복 등이 조선시대의 인물들이고, 화가 이중섭이나 이상범, 박노수, 시인 윤동주 등이 일제강점기 이래 이 지역에서 살았던 인물들이다.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으니 바로 시인 이상이다. 지난 2002년 김수근문화재단이 그가 살았다던 통인동 154-10번지(자하문로7길 18)의 한옥을 매입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로 어제는 지난 1937년 시인 이상이 27세의 나이로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한 날이었다.

문제는 그 한옥 역시 이상이 살았던 집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보수공사를 하면서 1933년 집장수들이 지은 집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가 2008년 문화재 목록에서 말소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현재 '이상의 집' 혹은 '제비다방'이라 불리는 이곳은 그저 이상이 살았던 '집 터'라고 하는 게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빨리도 변해가지만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한 지명이 붙고 또 충분한 고증도 없이 문화재 등재가 결정되는 한국의 오늘… 서촌 혹은 세종마을 같은 지명이나 이상 집 터를 둘러싼 에피소드들은 우리사회의 가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여친 없는데 결혼은 언제쯤… 체력다지고 직장 일 전념을

예쁜짱 남자 85년 10월 5일 음력 밤 11시 30분

Q 85년 10월생 남자입니다. 여자를 만나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언제쯤 결혼 할 수 있을지요. 자식 운도 궁금합니다.

A '갈대밭을 연상케 하는 형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생각과 결과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신체를 단련해보심도 좋을듯합니다. 재물 운은 '사막에 선인장'처럼 삶의 고생이 따르기는 하겠으나 점점 이재(理財)에 밝아지게 되어 자수성가 하는 훌륭한 사주입니다. 주작입묘(朱雀入墓)하여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성과를 내는데 분주하고 자신의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하니 나중얘기이겠으나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친구 간에 돈거래는 늘 유의하십시오. 꾸준한 직장인으로 사회성이 향상되는 기술직장이면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가난한 남친 계속 만나야하나 마음 접으면 3년후 결혼가능

DpMSw2 여자 91년 10월 15일 음력 밤 9시 30분

Q 91년생 여자입니다.2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집안에서 반대합니다. 그만 만나야할지 고민입니다 계속 만나야 할까요. 결혼 운과 자식 운이 너무 궁금해요.

A 음양(陰陽)이 조화되어 이해심이 깊으면서도 수화(水火)가 상쟁하고 있으니 조급하여 2018년까지는 한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가난한 현실을 떠나서 본인이나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접게 될 것입니다. 결혼운세는 2017년으로 보며 천성은 귀인(貴人)을 놓아 순수하고 총명하며 30대 들어서면 록마동향(祿馬同鄕)으로 왕성한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손은 아들을 두게 되며 자식이 발복하여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일시지(日時支)에 충살이 있어 이성문제, 삼각관계로 인한 번민을 면키 어렵고 음양차착(陰陽差錯)으로 배우자와 불화가 따르므로 긍정적인 사고로 일관해야 화목을 유지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8일 (음 3월 1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결정했으면 되돌아보지 마라. **60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72년생** 일이 순조로워도 정반의 경우도 생각해 보라. **84년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소 **49년생** 심란한 마음은 안정된다. **61년생** 장마 오기 전에 우산 준비하라. **73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심신만 피곤하다. **85년생** 나만 옳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호랑이 **50년생** 매매에 희소식 기대하라. **62년생** 외로운데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4년생** 예상한 일은 어긋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 **86년생** 상사의 질책에 정신이 번쩍 든다.

토끼 **51년생** 결정할 일은 미루는 게 좋다. **63년생** 사고수 있으니 운전은 가능한 삼가라. **75년생** 상대방 마음 읽어야 손해가 없다. **87년생** 극장이 데이트 길지이니 참고하라.

용 **52년생** 기대한 일은 지체될 듯. **64년생** 욕심 부리지 않으면 순조롭다. **76년생** 우물가서 숭늉을 찾지 말라. **88년생** 뜻밖의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한턱 쏜다.

뱀 **53년생** 힘은 들지만 실속도 있다. **65년생** 내 코가 석자니 남 걱정 말라. **77년생** 고집이나 주관이 강하면 일만 꼬인다. **89년생** 일에 차질이 있어도 순리 따르라.

말 **42년생** 정도 지키도록 노력할 것. **54년생** 기다리던 사람은 소식이 없다. **66년생** 형제가 섭섭하게 해도 오늘만은 참아라. **78년생** 오기로 밀어붙이면 손해가 커진다.

양 **43년생** 충고는 짧을수록 효과 좋다. **55년생** 막판이 좋으니 자신감 잃지 말라. **67년생** 불안한 자리는 안정 되찾는다. **79년생** 환경 탓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라.

원숭이 **44년생** 떠난 버스는 잊어라. **56년생** 친구 때문에 멀리 외출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계획은 능력에 맞게 세워라. **80년생** 자신에게 이기면 더 이상 적은 없다.

닭 **45년생** 속내 섣불리 드러내지 말라. **57년생** 명예가 올라가면 구설수도 따른다. **69년생**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적을 만들지 말라. **81년생** 옛말 따르면 손해 볼 것 없다.

개 **46년생**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58년생**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 **70년생** 해묵은 고민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82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돼지 **47년생** 경솔한 언행에 구설수 조심~. **5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71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겸손할 것. **83년생** 머뭇거리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그리스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월드컵 대표팀 부상 경계령

박주영·박주호·이근호 이어 기성용
소집 한달 앞두고 컨디션 난조 우려

브라질 월드컵을 두 달여 남긴 홍명보호에 '부상 경계령'이 불고 있다.

지난달 그리스와의 축구 평가전을 앞두고 홍명보(45) 대표팀 감독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감독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 듯하다.

그리스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었던 공격수 박주영(29·왓포드)은 봉와직염 치료차 국내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전에서 이근호(29·상주 상무)까지 무릎을 다쳤다. 현재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지만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는 박주호(27·마인츠)의 부상 소식도 전해졌다. 박주호는 7일 독일 현지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 염증의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회복까지는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마인츠에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며 홍명보호의 수비 걱정을 덜어주던 박주호였기에 아쉬움이 더욱 컸다.

부상 소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25·선덜랜드)이 부상으로 제동이 걸렸다. 기성용은 17일 선덜랜드와 맨체스터시티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에 나오지 못했다. 축구 전문매체인 사커웨이에 따르면 기성용은 다리 인대 염증으로 2주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물론 박주영·박주호·기성용 모두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위안거리다. 그러나 소집 훈련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경기 공백이 생기면 선수들의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베일, 엘 클라시코 영웅

결승골로 레알 마드리드에 국왕컵 우승 안겨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이 엘 클라시코에서 가장 소중한 승리를 소속팀에 안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17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코파 델 레이(스페인국왕컵) 결승전에서 FC바르셀로나에 2-1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의 대결을 일컫는 엘 클라시코는 전 세계 프로 스포츠팀 대결 중 최대 라이벌 전으로 꼽힐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다.

올해 세 차례 경기 역시 극적으로 펼쳐졌다. 앞서 두 차례 패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대결인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존심을 세웠다.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네이마르·사비 에르난데스·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등 핵심 선수 대부분을 앞세웠지만, 승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빠진 레알 마드리드에게 돌아갔다.

전반 11분 레알 마드리드가 디 마리아의 골로 앞서갔고, 후반 23분 바르셀로나의 마르크 바르트라가 동점골을 넣으며 승부는 팽팽하게 진행됐다. 이날의 스타는 베일이었다. 후반 40분 중앙선 부근에서부터 돌파해 나간 베일은 페널티지역 안쪽까지 질주해 갔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넣는 환상 골을 터트렸다.

3연패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6년 만에 무관으로 시즌을 끝낼 위기에 처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패한데 이어 갈 길 바쁜 프리메라리가 선두 경쟁에서 그라나다에 충격의 패배를 당하며 우승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유순호기자 suno@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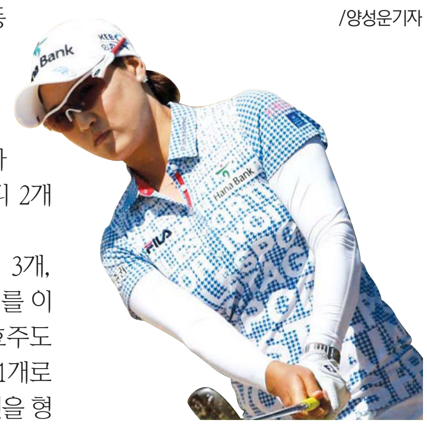
태극낭자 LPGA 시즌 첫승 희망

유소연·박세리·김효주 롯데챔피언십 1R 선두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첫날 상위권을 점령했다.

세계랭킹 7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사진)은 17일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천383 야드)에서 개막한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쳤다.

2012년 8월 제이미 파 톨리도 클래식 이후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유소연은 박세리(37·KDB금융그룹), 김효주(19·롯데)와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바람이 부는 날씨에서도 처음 5개홀에서 버디 3개를 낚은 유소연은 8번홀(파3) 보기가 옥에티였지만 후반 들어 버디 2개를 추가했다.



박세리는 이글 1개에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에서 날아간 김효주도 버디 5개를 쓸어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선배들과 나란히 선두권을 형성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5위에서 선두를 추격했다. 국가대표 이소영(17·안양여고)도 버디 4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박인비와 함께 2언더파 70타를 적어냈다.

2013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금왕 장하나(22·KT), 하와이가 고향인 미셸 위(25·나이키골프)도 2언더파 70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양성운기자

한화, 피에 돌발행동에 '화들짝'

수비 중 내야로 돌진 투수에 귓속말… '경고'



2014년 프로야구 화두는 외국인 선수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3명 등록, 2명 출전으로 확대되면서 선수들의 플레이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화이글스 외국인 선수 펠릭스 피에가 경기도중 돌발 행동을 보여 야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화는 지난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KIA전에서 8-6으로 승리하며 4연패 사슬을 끊었다. 그러나 한화는 피에가 4회 외야수 수비상황에서 내야에 난입하는 돌발행동을 해 경고를 받았다.

피에는 KIA의 추격이 거세진 4회말 클레이가 안타와 볼넷을 연거푸 내주며 무사 1, 2루 위기에 놓이자 갑자기 수비 위치를 벗어나 내야쪽으로 달려왔다.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피에에게 다른 선수들과 심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피에는 계속 직진하며 2루 베이스를 지나 마운드 근처까지 가서 클레이와 벤치에서 달려 나온 통역을 향해 무언가를 짧게 말하고 유유히 제자리로 향했다.

클레이에게 했던 말은 "진정하고 자신 있게 던져라"라는 것이다.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심판은 곧바로 한화 벤치에 경고를 줬다.

/양성운기자

박종환 성남 감독 폭행 논란

프로축구 성남FC 박종환(76)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성남F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 감독이 전날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균관대와 연습 경기 도중 미드필더 김성준과 신인 김남권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반전을 마치고 선수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두 선수를 때렸다는 내용도 있다.

성남 관계자는 "사실 확인중이며 결론이 나는 대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성남FC를 맡고 있는 박 감독은 1993년 K리그 경기에서 심판을 때려 중징계를 받는 등 폭행과 관련한 구설에 수차례 오른 바 있다. /양성운기자